군산형일자리 추진 '착착'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합동회의서 로드맵 공유 및 스마트 그린도시 협약

군산시가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으로 추진동력을 얻은 군산형 일자리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군산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합동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조정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등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과 최형기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일자리지원센터장이 함께 참석해 군산형 일자리의 정부 공모 선정을 축하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상생형일자리 지정에 따른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유공자 감사패 수여와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도시 조성 협약 체결, 군산형 일자리 향후 추진계획보고, 운영규정 안건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군산시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까지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발굴과 추진에 노력한 노·사·민 관계자 1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 군산형 일자리 중점추진사항은 참여기업들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돌입하면서 창출되는 500명의 신규 채용에 대비해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들의 조기안착을 위해 일자리상생기금 특례보증과 참여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 등 지원사업 실행과 함께 임금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 등의 체계를 갖추고 선진형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오는 11월에는 공동교섭을 통해 핵심상생요소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진행된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도시 군산 만들기 업무협약'은 군산시와 함께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개사가 정부 추진 그린뉴딜 공모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공동대응과 더불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시 실현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정부 그린뉴딜 공모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금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차 홍보?전시장과 충전기 40대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미래차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V 스테이션'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국 1호 익산 '마을자치연금' 추진 속도

농촌 어르신 노후 보장,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하반기부터 운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촌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인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마을자치연금 프로젝트는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코로나19가 갈라놓은 마을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익산시는 올 상반기에 마을공동체 주요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마을자치연금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주까지 태양광 설비 설계를 완료했으며 업체와 설치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태양광 인·허가를 획득한 날로부터 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허가 관련 부서와 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사전협의에 돌입하며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7월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28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에 마을공동체 주요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

현재 제1호 예비사업체법인으로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과 마을사업수익으로 연금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마을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체험과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핑장 등 시설 임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자체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 마을공동체법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손익이 1천5백만원 이상으로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기반이 돼야 한다.

시는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제2, 3의 익산형 연어프로젝트를 발굴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 농촌에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꾸준한 기부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

원광대 정민영 동문, 소액기부로 총 천만원 발전기금 기탁 약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한 정민영(2018년 졸업) 동문이 소액기부를 통해 총 1,000만원의 모교 발전기금 기탁을 약정했다.

정민영 동문은 "졸업 후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지만, 나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 모교에 소액이나마 꾸준한 기부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조금이나마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중한 모교 동문들에게 이 같은 뜻이 전해져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분이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지난 2019년부터 대학 구성원 및 동문을 중심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소액기부 운동으로 개벽원광발전기금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일반인까지 함께 참여하는 기부운동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7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1호 백신 접종

익산소방서(소방서장 전미희)는 3월 8일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구급대원 및 해외입국자 이송지원팀들이 전국 소방공무원 중에서 최초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익산소방서는 이달 8일 46명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구급대원 등 코로나 1차 대응요원인 소방공무원 130명에 대해 익산시 보건소에서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은 119구급대원이 불특정다수와 접촉하거나 확진자·의심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의료종사자와 같이 선순위 배정되어 실시한다.

이날 1호 접종자로 나선 진혜진 구급대원은 접종 후"독감 등 다른 접종과는 달리 움찔 움찔하다. 지난 1년 동안 현장 출동 시 방호복과 안경, 전면 마스크 착용은 물론 복귀 후 철저한 소독 등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이 많았다."며 "백신 접종 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공무원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우수'

군산대학교는 2020년도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학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교육부는 전국 총 154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20년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대하여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최종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을 세세하게 진단하여 그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이다.

평가 결과가 예비교원 양성 정원 즉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인원에 반영되므로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평가는 A~E등급으로 이루어지며, C등급은 선발 학생 30% 감축, D등급은 선발 학생 50% 감축, E등급은 과정 폐지의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군산대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4개의 학부 학과와 10개의 교육대학원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는 이번 평가의 10개 항목 23개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교직과정 선발 인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군산대학교는 교직과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질 높은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활동은 국립대육성사업 '지역 교육현장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직 소양 함양 비교과 활동, 수업클리닉, 수업경연대회, 학교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도교육청 연계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총 26건의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으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 의원)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윤영숙 의원)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한동연 의원)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건강도시 익산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 필요", 김경진 의원이 "국가예산확보(공모사업)시 시비부담에 대하여", 윤영숙 의원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김진규 의원이 "지역갈등 최소화하는 도시계획 필요", 신동해 의원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 필요"에 대해 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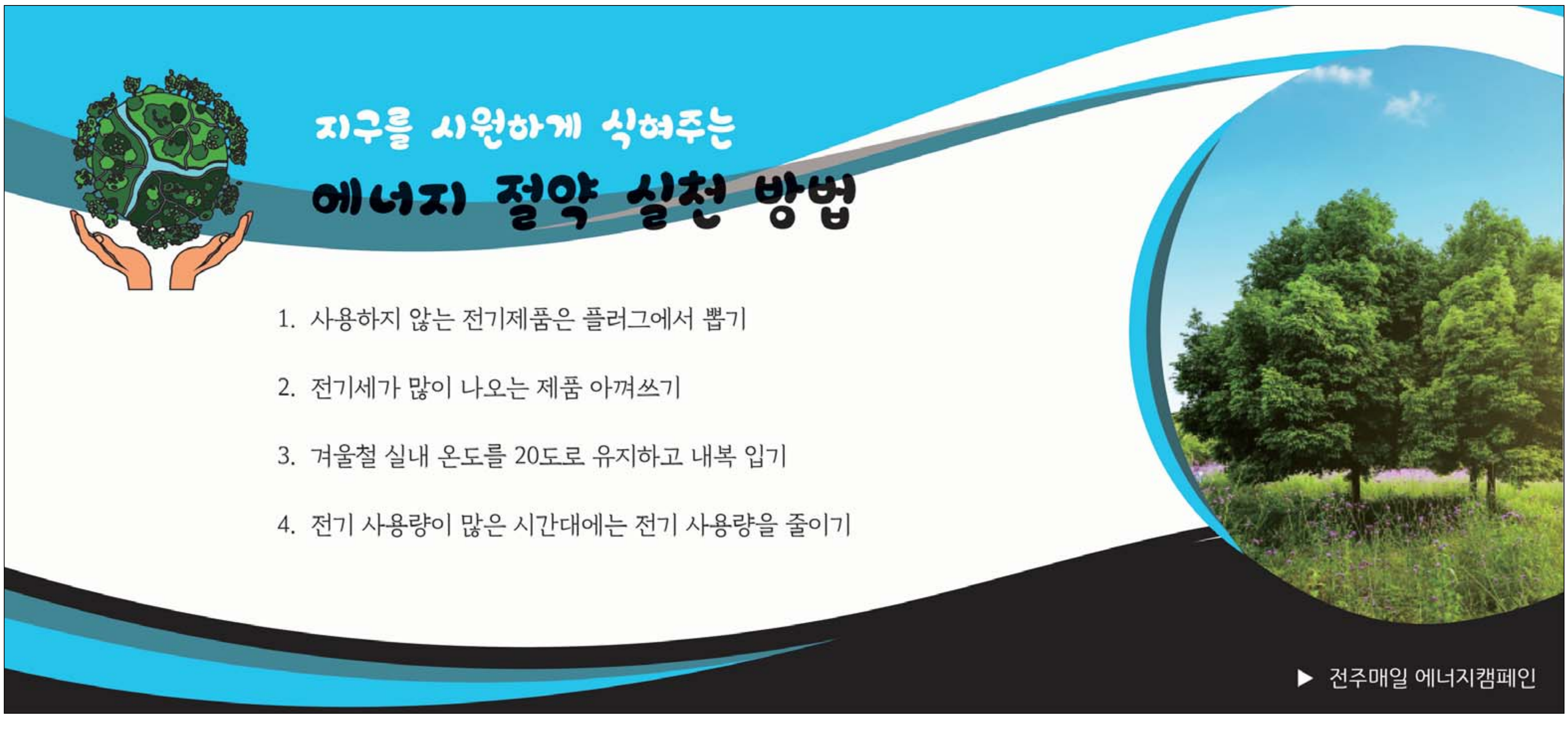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어린이 놀이터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는 지역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터 놀이교실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놀이터에서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전문 놀이활동가 10명을 파견해 운영된다.

시는 지난 5일 동네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8개 초등학교와 12개 지역아동센터 인근 놀이터에서 ▲달팽이놀이 ▲전래놀이 ▲티니클링 ▲톰과제리 술래잡기 ▲바람개비 날리기 ▲소라줍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5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아동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 다양한 놀이수업을 통해 바른 인성과 사회성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의 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